

『이제 안녕, 도룡마을』

골목잡지 사이다 엮음, (주)더페이퍼, 2020

김성우(Kim, Sungwoo)*

책 제목부터 아련하다. 책 표지에 무채색으로 그린 마을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다. 왼쪽 상단에 ‘마을 아카이브 01’이라는 타이틀이 무겁게 느껴진다. 마을 공동체를 아카이브(Archive)한 첫 번째 책이리라. 그 옆 큰따옴표에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이 마을에 함께 살았다”는 문구에 살짝 긴장이 풀린다. 오랜만에 고향집 대문을 여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긴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육신의 소멸과 더불어 그 노인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그가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니 가히 도서관 하나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물며 공동체의 터전인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도서관’을 넘어 ‘우주’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500년 세월의 역사가 사라지는 일이고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정보학 석사(sungwookim@hanmail.net).

평생의 친구와 이웃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밥 먹고 숨 쉬고 걷던 모든 풍경이 사라지는 일입니다(13p).”

그렇다고 이 책에 구술채록된 스물다섯 가구와 그 마을에 살던 주민들의 ‘도서관’이 불타 없어진 것은 아니다. 500년 세월의 역사가 사라지거나 ‘우주’가 소멸된 것도 아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도롱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도롱마을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기 전에, 평생의 친구와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밥 먹고 숨 쉬고 걷던 모든 풍경들에 대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 몇 장으로 도롱마을의 사계를 대신할 수는 없고, 구술채록 몇 페이지로 그들의 삶과 애환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구술채록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어르신들이마의 주름살처럼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억이자 역사다. 작아 보이거나 미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롱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만드는 마을 아카이브를 통해 도롱마을은 불멸의 역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마을 공동체를 다룬 또 다른 책이 있다.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지역문화원 등이 2011년에 출간한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기억』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주간 행사<기억공동체와 인문적 삶 : 지역아카이브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진기록을 통한 서울과 논산, 홍성 등 세 지역의 기억을 다루었다. 사진이라는 근대적 시각매체가 근현대인의 삶과 기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진기록을 통하여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마을 공동체라는 비슷한 주제이지만 이 책에서는 사진과 사물에 대한 기록은 물론 주민들의 구술채록으로 진본성과 신뢰성을 더했다. ‘마을 아카이브’의 첫 번째 책인 『이제 안녕, 도롱마을』

이 특별한 이유다.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이제 안녕, 도롱마을』은 2018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된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도롱마을에 대하여 2019년 여름부터 이듬해 겨울까지 마을 공동체의 일상을 기록한 책이다. 약 십다섯 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대부분 토박이로서 이 마을을 떠난 삶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기록보고서다. 이 책을 엮은 <골목잡지 사이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도롱마을의 골목골목을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기억하는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들의 기억을 따라 도롱마을의 일상과 사계는 물론 그들의 모습과 마음까지 기록하려 했다.

책은 크게 세 개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록인 ‘이제 안녕, 도롱마을’에서는 포토에세이와 마을의 기억을 만나다 그리고 마음에 남긴 풍경으로 도롱마을에 대한 일상과 사라질 사계절의 모습을 담았다. 두 번째 기록인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에서는 스물다섯 가구의 구술채록을 통해 삶과 애환 그리고 속마음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오래된 앨범과 오래된 물건 이야기로 그들의 아쉬움을 기록했다. 세 번째 기록인 ‘마지막 농사를 짓다’에서는 모내기에서 추수에 이르기까지 도롱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농부들은 추수가 끝나면 다시 이듬해 모내기를 준비하지만 이제 도롱마을 사람들의 모내기는 기약이 없다. 그렇게 책은 마무리된다.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는 농부의 뒷모습으로 이 책은 끝나지만 도롱마을 사람들은 어디선가 새로운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만 같다.

이 책은 도롱마을에 살았던 스물다섯 가구 주민들의 삶과 기억에 대한 기록보고서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 마을 공동체의 기억이 있고, 우

리나라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었다. 도롱마을의 기억에 대한 역사를 기록에 대한 역사로 남긴 이 책에서 도롱마을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었다.

기록의 역사를 아카이브의 미래로

‘아카이브(Archive)’란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는 컴퓨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와 연결하여 함께 유지·보관한다는 뜻이었지만, 근래에는 각종 소장품이나 컴퓨터 파일 등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총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라고 하면 기록의 평가와 선별, 분류와 기술 그리고 보존 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달로 기록정보가 급속히 늘어나며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록의 활용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총아인 인공지능(AI)의 원천으로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기록정보서비스도 기록의 축적으로 가능하듯이,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정보서비스 즉, 기록의 활용에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목적이다. 마을 아카이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마을 아카이브 첫 번째 책인 『이제 안녕, 도롱마을』에서는 주민들의 기억에 대한 기록은 충실한 반면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어 주민들이 도롱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도롱마을의 유래와 행정구역 변천이나 마을지도 등의 변화는 물론 몇 가구가 언제부터 살

아왔고 어떻게 도룡마을을 떠나 어디에 정착하는지 그리고 이 책에 실린 구술채록의 원본 파일이나 사진 및 오래된 물건 등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자세했으면 싶다. 특히, 각자의 이야기 끝에 게재된 사진 속 스케치북 문구 하나 하나가 절절하지만 한두장의 사진은 누군가 적어준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이마에 새긴 주름살처럼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하고 가슴 저린 사연도 있을 것이며, 때론 받침이 틀리거나 알아 볼 수 없을 만큼의 빼돌빼돌한 자필 사진 한 장이 주는 울림이 클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에 구술채록한 어떤 부부는 일생을 해로하며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나중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 역사실록도 마찬가지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마을 아카이브도 그렇다.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려주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때로는 역기능이 그리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빙은 기억의 편린을 모아주는 지도와 나침반이다. 마을 아카이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